

종교개혁과 교육

(기독교학문학회 기초강연 2017.5.13. 안양대학교)

조성국(고신대학교)

1. 들어가면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비텐베르크성 교회의 문에 95개 논제를 부착했던 것을 종교개혁의 역사적 시발점으로 인정하여 개신교회는 그 날을 종교개혁기념일로 정하여 기념해 왔음에 비추어 금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할 수 있다. 100년이 다섯 차례나 맞아 떨어진 500년이라는 년 수도 각별하여 관심을 끌지만, 올해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 것은,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드러낸 도덕적 일탈과 낮은 사회 의식 수준이 교회 내외로부터의 강한 개혁 요구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개혁과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독교학교운동과 더불어, 저출산과 세속화의 결과로 현저하게 줄어든 주일 교회학교의 위기가 일부에서는 대안 모색에서 근본적인 반성으로 이어져 과거의 종교개혁운동으로부터 새로운 교훈과 통찰을 얻기를 기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들마다 교육역사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내용이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많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유를 반성해보면 양면적이다. 우선 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근대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근대와 현대는 종교개혁시대와 다른 세계관이 주도하던 시대였으므로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과 활동의 기여는 주목받기 어려웠다(조성국, 2016, 29-30). 그리고 신학에서조차도 종교개혁시대와 근대이후는 연구방법만 아니라 관심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어 교육이라는 주제는 종교개혁자들의 경우에 비할 때 근대 이후의 신학자들에게는 관심 있는 주요 주제가 되지 못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교육활동과 편지, 공적 문서 등에서 교육에 대한 선구적인 통찰을 보였고, 그들이 구상했던 학교모델의 탁월성과, 그들의 사회적 리더십의 힘으로 그들의 교육사상이 당시대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이 이후 시대에도 기독교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주제의 다른 저술들에 비할 때 교육용의 교리교육 교재들 외에는, 학문적 의미로 교육이론을 체계적으로 상술하는 저술들을 남기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근대이후 학자들로부터 좁은 의미의 신학자로 분류되었고, 전문적인 교육(학)자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교육학자들과 개신교공동체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개신교신학의 토대로 간주되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의 교육도 기독교공동체의 교육을 위한 토대 내지 기초 원리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역사성이나 전통의 권위에 앞서, 그리고 그들이 교육과 관련하여 강조했던 주장들이 갖는 창의성과 탁월성에 앞서, 그들이 보여준 성경적 원리와 통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국의 개혁주의 기독교계 목회자들에게서 주목할 만한 일은 종교개혁자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리교육이 재발견되어 교리교육 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종교와 교육의 관계

종교개혁시대 유럽에서 종교는, 근대이후 사회에서처럼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할

동이어서 삶의 모든 범위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이념, 혹은 시대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관심사는 국가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였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선생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었다. 교회와 국가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가치에 있어 현대의 정교분리원리에서처럼 엄격하게 구별될 필요가 없었으므로, 교회의 관심사와 국가의 관심사가 상호 무관한 것으로 구별되지 않았다. 국가 통치자들이 세속 권세를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비록 상징적이기는 해도 그들의 권력기반은 종교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정신과 문화를 주도해 온 종교는 종교활동과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을 교육하였다.

시대정신과 문화 내용의 주도자인 종교 기관인 교회가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학교들은 교회 옆에 세워져 운영되었고, 학교 교사들은 학문을 위한 공통의 예비과정이지만 동시에 신학을 위한 예비과정인 인문교육을 공부했거나, 이후 신학도 공부한 사람들로써, 많은 경우 수도자들이었다.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의 많은 부분도 그들에 의해 선정되어 배정되었고, 학교의 장학활동은 교회지도자들의 주요한 활동이었다. 학교는 교회와 완전히 분리되는 기관이 아니라 동일한 연장선에 있었고, 단지 교육의 기능을 특화한 기관이었다.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성격의 '학교'에서 오랫동안 양성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성격의 학교에서 일한 '학교의 사람들', 곧 '교육의 사람들'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의 생애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의 양육이나 교회의 종교의식보다 학교였다. 학교교사는 부모들과 같았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대 학교의 인문교육에서 두각을 드러낸 학생들이었고, 학교의 종교적 분위기에 깊이 심취한 모범생들이었으며, 문제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면서 연구하는 능력을 갖춘 학자로 양성된 선생들이었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교회의 교권에 참여하여 일하는 성직 행정가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와 관련하여 일했다. 개혁된 교회에서 목회하였으나 로마가톨릭교회의 경우처럼 의식 집행자이기보다 선생과 같은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와 기독교신앙의 교리교육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여전히 한 발은 학교에 담그고 학교를 개혁하고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곧 학교교육운동을 진행한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당시대 개혁된 교회의 중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중심에 있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신학과 교육학, 교회와 학교는 상호대립적인 성숙의 관계, 혹은 서로 무관한 별개 영역에 있지 않고 동일한 기초 위에 있는 연속적인 관계의 기능 혹은 활동이었다. 종교와 교육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의 기본 활동이었고, 신학과 교육학은 동일한 종교적 세계관 위에 세워져 있는 학문으로서 상호 연속적이며, 교회와 학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모두 기독교공동체에 필수적인 기관이었다.

로마 가톨릭 세계관에서는 은총과 자연이 모두 수용되면서도 성과 속으로 구별될 수 있었을 지라도, 종교개혁자들은 더 이상 성속의 구별이 아니라 모두가 종교적인 것, 은총적인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교육과 교육학과 학교가, 성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 종교와 신학과 교회와 달리, 속에 속한 것이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종교개혁 이후 국가는 점차 교회로부터 독립해 간 것이 사실이지만, 학교는 이후 200여 년 동안도 교회로부터 소위 자유를 얻기 위해 독립하거나 옮겨가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3. 기독교신앙의 분별과 고백을 위한 교리교육

종교개혁자들의 주요관심사는 교회와 관련해서는 로마가톨릭교회와 비교하여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관련해서는 미신적이고 이원론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 참된 교회, 곧 개혁된 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규정하는 신앙고백 내용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였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경건의 지식을 알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했으므로 교리문답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켰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신앙을 요약한 다양한 형식의 교리문서들을 만들었다. 루터의 『소교리문답서』와 『대교리문답서』, 그리고 칼빈의 『제네바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제네바교회의 교리문답서』, 그리고 『기독교강요』 등의 교리문서는, 교회의 기초에 대한 선언적 문서를 넘어 기독교신앙 교육을 위한 교과서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기는 했으나 출판기술의 한계로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여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지 못하였고, 언어교육이 보편화되지 못하여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리문서는 더욱 절실하였다.

종교개혁자들에게 교리는, 오늘날 일부 진보적 신학자들이나 근대 이후 새로 등장한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성경의 소박한 가르침과 대비되거나, 일상의 삶과 대립되는 소위 이론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명료하고 쉽게 정리한 것이고, 일상의 삶의 윤리와 경건생활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서였다. 교리문답서의 경우 주된 내용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의 설명이며, 이를 기초로 구원론과 성례, 그리고 생활과 경건생활의 규범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소교리문답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였으며, 성례에서 재교육하고, 교회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할 내용이 되었다. 물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교육은 교리교육을 뜻했다.

칼빈의 경우 교리교육의 목적은, (1) 기독교 신앙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 (2) 이단적 지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3) 기독교신앙의 전체와 요점을 균형 있게 알도록 하는 것, (4) 기독교 공동체가 공동의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조성국, 2016, 71-73). 종교개혁자들은 일부 신학적 논쟁의 글을 제외하고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글을 쓰거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다. 종교개혁자들의 많은 글들은 교육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저서 중 가장 신학적인 책으로 간주되곤 하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조차도 카테케시스, 곧 교리교육의 맥락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리교육의 대표적 인물이기도 한 칼빈의 교리교육 방법에서 특이한 것은, (1) 기독교신앙을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전체를 알도록 하는 것, (2) 신앙의 내용을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는 점, (3) 학습자의 이해수준과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요약, 확장, 심화시킨 다양한 교리교육서를 만들고, 그 교리교육서들로 나선형의 발전으로 나아가게 한 것, (4) 교육적 형식인 문답의 형식에 맞추어 기독교신앙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양한 각도의 질문과, 학습자로부터 예상되는 질문을 제기하여 확실한 이해에 이르게 하는 것, (5) 이해에서 확신과 고백에 이르게 하고, 경건생활과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완전학습을 시도한 것, (6)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다루어 교리교육을 흥미롭게 한 것, (7) 교리학습을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확인하는 관리시스템을 시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조성국, 2016, 79-83).

4. 모국어를 통한 보편교육의 확산

중세기동안 교육은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었으나 실제로 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주요 기관이었던 교회와 국가, 그리고 학교를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교육이 일반적이었고, 중세후기에 이르러서야 상공계급을 위한 학교가 발생하였다. 교육의 언어가 라틴어라는 점에서 농민과 서민들에게 교육은 실제로 닫혀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계층과 직업, 연령과 성에 제한받지 않고,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 신앙 이해와 고백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졌고, 그 종교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로서의 교회를 확립한 데 있다. 루터는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린 책이 되도록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교리문답서를 모국어로 출간하여 일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모국어를 통한 신앙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국어 성경과 교리문서, 그리고 모국어 설교는 교회의 공적 언어를, 더 이상 성직자와 교육받은 자들의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바꾼 것을 뜻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동을 위한 모국어 교육과, 모국어를 통한 종교교육과 도덕교육, 기초적인 지식교육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교육을 각성시켰다. 모국어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 특히 루터는 선구적이었다. 루터는 그의 글 「기독교학교를 후원하고 유지할 것을 모든 독일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호소함」(1524)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에 대한 설교」(1530)에서, 그리스도인인 모든 시민과 그 자녀들이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일이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며, 교육받은 시민이 국가의 힘과 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지도자들이 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모든 시민의 자녀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부모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낼 것을 명령하고, 국가가 학교를 세우고, 학교의 운영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칼빈도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 『교회법규』(1541)에서 어린 아동들을 위해 모국어로 가르치는 초보적 단계의 대형학교 설립을 제안하였다.

물론 종교개혁시기에 루터와 칼빈의 국가 정책 제안은 국가 혹은 시당국의 수용 및 적극적인 지원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모국어 초등교육은 실제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교육이 실제로 법제화되어 보편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민족 민주 국가가 확립되는 과정과 동반되어 18세기 후반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초등학교교육의 필수적 기초인 모국어의 위상 확립과 초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이에 적극적이었던 루터는, 국가에 의한 의무보편교육 사상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루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선구적인 제안을 했다. 예컨대, 여자아동도 남자아동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음악과 음악극을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한 것, 실과교육도 주요 교육내용으로 인정한 것, 민속과 민요와 격언과 우화 등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한 것, 체육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중심을 성직자에서 일반 그리스도인에게로, 국가에서는 권세자 중심에서 일반 시민에게로 확장해 가는 흐름에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실행 방법은 교회와 학교에서 모국어를 확립하고 보편 교육을 확산하는 것이었다.

5. 탁월성을 추구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진 가톨릭교회가 가하는 공격과, 사회적 안정에 민감한 국가권력자들로부터 예상될 수 있는 박해 가능성에 대응하여 종교개혁의 명분과 참된 교회 및 참된 신앙이해의 차별성을 해명하는 일에는, 기독교신앙 이해에 대한 수월성을 필요로 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기독교신앙의 이해에 관한 한, 수월성을 가진 신학자들이었다. 그리고 개신교로 돌아온 교회들과 지역으로부터 요구받는 새로운 목회자과 교사, 곧 개혁신앙을 가르치고 변증하며 개혁운동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은, 로마가톨릭교회 지도자들에 비하여 수월성을 가진 지도자들이어야 했다. 이러한 요구는 수월성을 형성할 수 있는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으로 이어졌다.

당시때까지 학교는 대부분 인문교육을 실행하는 중등교육기관인 라틴문법학교와, 신학과 법학의 고등교육을 위한 대학이며, 교회와 사회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목적에서 운영되었으므로 비록 학교 여건은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학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칼빈은 개신교지역에서 일할 수월성을 가진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으므로, 제네바에 처음 도착했던 1536년부터 학교의 재건이나 새로운 학교의 설립,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시의회를 설득하였다. 그가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제네바교회의 조직과 예배의 구성에 관한 조항」(1537)과 「교회법규」(1541)는 학교설립의 필요성,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사의 직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는 학교에 대한 재원지원에 미온적이었던 시의회를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1559년 제네바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종교개혁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이상에 맞추어진 전형적인 모델로 인정되어 설립 시 162명의 학생이 5년 만에 유럽전역에서 온 1,500명의 학생 규모로 발전했다(Maag, 2000). 이후 이 학교는 유럽전역의 개신교지역 대학들의 모델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네덜란드의 레이던대학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영국의 세인트앤드류대학교, 그리고 이후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대학교의 설립에도 토대가 되었다(이환봉, 2002).

제네바아카데미는 중등교육과정(Scholiam Privata, college)과 고등교육과정(Scholiam Publica, academy)을 동시에 운영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인문교육과정 곧, 라틴어와 교양과목들을 가르쳤으며, 고등교육과정은 대학과정으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등 고전어와 철학과 신학을 가르쳤다. 제네바아카데미는 교회와 국가를 위한 대학교로 간주되어 신학 외에도 법학과 의학을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가졌으나 칼빈의 생전에 실제로 그러한 학과 전공을 교육하지는 못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 학교는 기숙학교로서 종교활동 및 기독교신앙교육으로 기도회, 예배, 시편찬송, 교리문답교육, 성경공부 등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인문교육과정에서 당시대 다른 학교들에 비하여 과목 등 교육내용에 현저한 차별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칼빈은 인문교육이 내용 자체보다 지적 능력을 구비시키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했으므로 일반적인 과목들을 비평적으로 받아들였다.

선생으로서의 칼빈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교육의 방법을 통한 수월성 도달이었다. 칼빈은 수월성을 가진 교사 초빙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가장 탁월했던 은사인 코르디에를 비롯하여 탁월한 교사들을 초빙하는 일에 무리하면서까지 애썼다. 그리고 수업방법과 지도방법의 효율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당시 주목받았던 교육가인 스투름이 운영한 스트라스부르아카데미를 모델로 삼아, 교육과 관리 방법의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최상의 라틴어교사를 통해 철저한 어법이해와 해석, 토론 및 논술교육을 시도하였고, 수

준에 따른 소그룹 교육과 엄격한 시험을 통한 진급제, 그리고 학업성취에 대한 포상의 방법으로 학습의 수월한 목표달성을 독려했다(조성국, 2012, 128).

칼빈은 교육과정과 방법에서 독창적이지는 않았으나, 수월한 교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로 효율성을 높여 수월한 성취를 얻게 하는 데는 탁월하였다. 물론 당시대 종교개혁가들과 교사들은 비록 철저한 교육방법으로 높은 수준 달성을 요구하며 가르쳤으나, 교육적 열정에 불타고,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돌봄도 제공하는 사람들이어서, 철저하고 엄격한 교육이 학대로 나아가지 않았고, 학생 상호간 과도한 상호경쟁으로 내몰아 과도한 자만심과 좌절감에 빠지게 하지도 않았다. 제네바아카데미는 유럽 전역의 개신교지도자들이 추천하는 학교, 개별 학생이 자발적으로 지망하여 찾아가는 학교, 졸업생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학교였다.

6. 종교개혁가들의 교육이 한국 기독교교육에 주는 함의

종교개혁가들의 사회적 특성과 오늘날 한국사회의 특성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다. 사회의 규모와 문화적 특성과 생활은, 규모의 차이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아주 다르다. 종교적 사회가 세속적 사회로 변했고, 미분화된 채 복합적이었던 영역들이 세분화되었고, 공동체 내에서도 비교적 단순한 구성이 질적으로 아주 다른 이질성들을 가진 부분들의 복합으로 변했고, 사회문화와 삶의 전반에서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교류와 소통이 극대화되어 큰 발전을 이루었다.

교육에 있어서도 종교개혁자들이 설득하려고 애썼던 국가의 교육적 책무는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국가의 가장 주요한 임무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보편적인 의무의 시민교육이 되었고, 근대민족국가이후 모국어는 라틴어를 대체한 공식 언어가 되어 국가행정과 교육과 학문의 언어가 되었다. 학교들의 수는 충분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합병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특정 대상에게만 열려 있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시민들에게 활짝 열렸고, 교육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까지 국가의 장학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학교교육의 방법은 교육심리학, 교수학습이론, 교육공학, 교육행정 등의 발전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종교개혁자들이 선구적으로 보여주었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을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선구적인 교육적 혜안은 교육의 역사의 발전에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아직 충분히 각성되지 못했고, 실현되지 못했거나, 여전히 개혁을 요청하는 과제와 함의는 무엇인가?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이 각성될 필요가 있다. 근대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성숙의 확실한 구분이고, 성의 영역으로 간주된 종교 영역의 지속적인 축소와 개인화이다. 그 대신 속으로 간주된 국가, 사회, 교육은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세를 이루었고, 그 논거는 성격상 중립적 혹은 탈종교적이라는 주장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영향으로 근대이후 복음주의 공동체 내에서도 학교교육의 중립화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학교는 신학과 교회의 주요한 과제 목록으로부터는 멀리 두는 선택을 해 왔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에게 종교는 그런 의미가 아니며, 또 종교는 교육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고, 결코 교회와 무관한 기관일 수 없었다. 근대이후 확립된, 학교교육에서 종교의 교육과 종교활동을 배제한 교육은 인간중심과 세계중심 이념으로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을 배제하여 기독교적으로 볼

때 반역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종교적 교육이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공동체를 개혁하는 수단이었다면, 근대이후 인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교육은 교회를 고립시키고 기독교공동체의 세대계승을 현저하게 위협하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기독교지도자와 교회와 기독교공동체에게, (학교)교육의 과제도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소명이며, 결코 부가적인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각성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개혁의 내용과 과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려는 대상과 과제는 당시에 대세를 이룬 로마가톨릭의 미신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개혁하여 참된 교회와 참된 경건을 확립하고, 교육의 필요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회를 설득하여 학교교육의 진보를 도모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공동체가 개혁하려는 대상과 내용과 과제는 어디에서 찾아져야 하는가? 더는 로마가톨릭교회가 대세도 아닐뿐더러 박해자도 아니다. 그 대신 국가는 이념에 있어 종교와 교회로부터 결연될 정도로 멀어졌고, 오히려 국가권력은 자유로운 기독교교육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공교육에서 국가의 교육을 표준으로 삼아 결과적으로 기독교교육을 배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육의 개혁 대상은 국가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병적인 경쟁을 부추겨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왜곡하는 경향성을 조장하는 제도의 개혁과, 비교육적인 그리고 반교육적인 권위주의적 교육의 개혁, 교육방법의 개혁 등을 들 수 있겠고, 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에서 기독교교육의 자유와 기독교적 교육과정의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 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와 칼빈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시의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기독교공동체는 교육개혁을 위해 국가와 시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참된 교회관과 참된 경건의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교육내용의 개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으로부터 오늘날 개신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었다. 모국어 성경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책이 되었다. 가르치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교회 내에는 수련회, 집회와 더불어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설교와 교육을 위해 최상의 영상매체를 사용하고 있고, 교회들은 주일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만을 위한 시설인 교육관도 구비하고 있다. 어느 시대보다 교회 내 교육활동이 주요한 종교활동이 되고 있다. 교회교육의 개혁은 더 이상 시설이나 효율적인 방법의 개선과 같은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교회교육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육의 내용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인 교회관의 확립, 성경적인 기독교신앙의 이해와 고백에 대한 관심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 작성의 배경이었다. 성경으로부터 핵심적인 교리를 체계화한 교리내용을 그리스-로마의 세속적 정신과 로마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차별화하면서 명료하게 가르친 것이 당시대의 교리교육이라면, 오늘날의 교육내용은 이 시대와 한국사회의 세속적 신념들과 차별화하면서 명료하게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는 효율성 보다 내용에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성장과 열성(감성)화를 위한 수단에 주된 관심을 갖기보다, 이미 기독교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성과 세속성의 개혁이 구체적인 교회교육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단성을 구별해내기 위해 참된 신앙이해, 참된 경건의 삶, 참된 교회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세속성을 구별해내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교육은 오늘날 우리에게, 효율적 기능을 위한 방법의 개선보다, 교육의 본질과 내용의 개혁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 이환봉 (2002). 칼빈의 교육적 유산: 제네바아카데미의 교육원리와 실제, 「이근삼박사 사역50주년 기념논집」. 서울: 총회출판국. 353-386.
- 조성국 (2000). 칼빈의 신앙교육서들을 통해 본 기독교신앙교육, 「한명동구순기념논문집」. 203-226.
- 조성국 (2003). 칼빈의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경건, 「기독교교육 논총」 9. 237-266.
- 조성국 (2010). 칼빈에게 있어서 가정과 가정교육, 「복음과 교육」 7. 63-91.
- 조성국 (2012). 칼빈에게 있어서 학교교육, 「기독교교육 논총」 30. 109-141.
- 조성국 (2016). 『종교개혁과 교육』. 서울: SFC.
- 지원용 (1991).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서울: 컨콜디아사.
- Maag, K. (2000). Calvin's academic and educational legacy. Foxgrover, D. *The legacy of John Calvin*. Grand Rapids: Calvin Studies Society. 11-26.